

2019년 이단경계주간(10.28-11.2)
기도회 및 주일 예배 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목 차

발간사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	3
기도회 첫째날 _(10/28) ·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 김수천 목사 ■	4
기도회 둘째날 _(10/2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권진호 목사 ■	5
기도회 셋째날 _(10/30) · 함께하시는 성령 · 김필수 목사 ■	6
기도회 넷째날 _(10/31) ·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성경 · 김영윤 목사 ■	7
기도회 다섯째날 _(11/1)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 한은종 목사 ■	8
기도회 여섯째날 _(11/2) · 구원과 재림의 신앙 · 정학진 목사 ■	9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11
이단경계주일 설교문 1 · 거짓 영을 시험하여 물리치라 · 이후정 목사 ■	13
이단경계주일 설교문 2 · 이단을 대하는 법 · 박도웅 목사 ■	16
이단자료 1 · 국내 이단 교세 현황 · 김현식 목사 ■	19
이단자료 2 · 국내 신흥 종교 계보 · 김현식 목사 ■	20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6700여 교회와 모든 목회자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전도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피전도자가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의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기성교회의 성도들마저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서울과 부산, 대전과 인천 등의 대도시에서 대형집회를 하고, 역전과 시장,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포교활동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넘어뜨리려 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정예까지 침투하여 가족마저도 분열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단의 잘못된 행태를 보노라면 성경이 말하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의 모습이니 참으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적 마귀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날 때입니다.

감리회는 지난 8년간 교인수가 꾸준히 줄어든 통계를 가졌으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교세를 늘려갔다는 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여 전도에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단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시기부터 지금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때일수록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며, 교리를 견고히 지키고, 건강한 신학을 세우고, 교회 수호를 위해 모두가 연합하여 대처하면 이단은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단경계주간을 선포하고, 이에 맞춰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경계주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이단의 실체를 알리며 그들의 포교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귀한 연구 자료와 신학사상이 수록되어 있어서 건강한 모든 교회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발간을 축하하며, 수많은 날 동안 연구하고 정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신학대학 교수님들, 목회현장에서 증언과 고견을 주셨던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육국 총무직무대리와 실무책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 성경: 시편 8:1~9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1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직접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동물들의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 사는 인간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체라는 사실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빛나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화를 냈었던 모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상의 누구보다 온유한 성품이 되었다고 민 12:3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온 우주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 지는 성화의 길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 5:48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대면할 때까지 성화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5-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연에 대한 청지기 보다는 자연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 8:19-22절은 피조물들이 종말적 구원의 희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2절은 어린이들과 아기들의 입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이해하고 더 늦기 전에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의 이기성을 회개하고 지구를 살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천 목사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단대책 전문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둘째 날(2019.10.29. 화요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기독론)

-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성경: 요한일서 5:11~12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2조

감리회 신앙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救世主)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主)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구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았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불순종과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으로 인도하였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불행과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탄과 악한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는 말은 곧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지배자,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주(주인)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는데,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葬事) 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삼켜버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악한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우리가 아담의 죄를 통하여 당하게 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진호 목사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단대책 전문위원)

함께하시는 성령

-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 성경: 요한복음 14:16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3조

오늘도 성령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타종교, 무신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의 생활태도 등이 교회의 교인 감소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신비주의를 쫓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리회 신앙고백 3조는 성령에 대해 “우리와 함께 계시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은 **보혜사 성령**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이며 희랍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라고 합니다. 보혜사(변호사)는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지 않고 피고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의 감면을 요청한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다고 변론하여 주십니다.

보혜사의 다른 뜻은 위로자이다. 롬 8: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 할 때 힘주시며, 슬프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 송명희 씨는 뇌성 마비 장애와 가난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찬송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증거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거둬내게 하시고 (중생) 거룩하게 하시며(성화)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과거 예수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사건으로 현실화 시키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임 없이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죄를 변호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과 능력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살아갈 때 각종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고 그 능력을 누리며, 그 경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서적: “감리교는 무엇을 믿는가?”(감리교 신앙고백 해설집) 이찬석. kmc. 2016년

■ 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유혹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필수 목사 (호남선교연회 비전교회, 이단대책위원)

우리를 온전게 만드는 성경

- 찬송: 202장 하나님아버지 주신 책은
- 성경: 디모데후서 3:16~17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4조

오늘은 네 번째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들이 기록은 하였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약 1600년의 긴 세월을 걸쳐 40여명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말씀들이 서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4: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고 화를 받는 법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본문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교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리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탄생이 언급되고 있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책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죄'나 '회개', '지옥' 같은 단어들을 쓰면 큰일 나는 줄로 압니다. 그저 웃고 떠들고 사람들의 감성을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 웃기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탕발림입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잘못할 때 지적해 주고 권면해서 바른길을 가서 그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지 말고 순순히 받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고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도 방언, 직통계시, 무슨 음성, 환상, 기적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를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유익합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무엇도 감감하지 말아야 할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의 검을 가져 이단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성경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김영운 목사 (삼남연회 상주교회, 이단대책 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19.11.1. 금요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성경: 마태복음 16:18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6조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 제일주의라는 흐름으로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건물을 확장하거나 건축하는 것을 목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고 성도의 수는 늘어났지만 한편에서 염려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교회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적 교회는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나 쉽게 흔들여 놓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놓칠 수 없는 중요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특히 건강한 교회 의식과 신앙은 직분자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관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과정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기록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회 신앙고백을 보면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감리회신앙고백 6.)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이단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견고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은중 목사 (중부연회 신성교회, 이단대책 위원)

구원과 재림의 신앙

-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성경: 마가복음 13:5~13
- 참조: 감리회 신앙고백 8조

오늘날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 등 정체성의 혼돈 시대를 맞고 있고, 외적으로는 잘못된 시대사조와 극심한 이단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교계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적경계와 외적인 영적전쟁에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내부분열과 극심한 갈등을 그치고 온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단경계주간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감리교에서 이런 주일과 주간을 정하고 교우들에게 교육하는 기회를 준 것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12월 2일 창립총회를 열어 8개항으로 된 <교리적 선언>을 제정하였고, 1997년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감리회 신앙고백>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웰치 감독은 3대 원칙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의논하는 동안에 선결적으로 목적인 바가 있는데 첫째로, 이 새 교회는 반드시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회는 한국적 교회가 되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즉 한국감리교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한국적 교회'라는 3대 원칙의 토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섯 가지 기본 교리,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再臨)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리인 '재림'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점점 허약체질로 변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래 두 가지 큰 이단사건으로 한국교회의 무기력이 증폭되었습니다.

먼저 '권신찬파'로 대별되는 '구원파'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을 향해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묻은 뒤,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라며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면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며 현혹합니다. 이 구원파가 한국교회에 휩쓸고 지나간 뒤 더 이상 교회 내에서는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게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구원'이란 무기를 해제시킨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992년 10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재림파" 소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다미선교회'를 비롯한 이러한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병폐는 교회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폐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실 우리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再臨)처럼 강렬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거대한 이단 태풍이 한국교회를 휘몰아치고 떠난 뒤에는 더 이상 강단에서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혹시 이단으로 취급되거나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내지는 복지부동(伏地不動)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구원과 재림’,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같은 신앙으로 죽음보다 깊은 박해를 견뎠고 급기야 순교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할 경우 쫓겨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인사를 건네며 힘든 시간을 이겨나간다고 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십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때이고, 오늘은 비록 환난과 박해의 시기이지만 내일 주님은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곤고한 삶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한 번 잃어버린 무기를 꺼내들고 악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 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되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이 되도록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정학진 목사 (중앙연회 일동교회, 신학정책위원회 서기)

■ 11월 첫째주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26장(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 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거짓 영을 시험하여 물리치라!

요한1서 2장 18~23, 4장 1~6절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감리교회가 지키는 이단경계주일입니다. 이단경계주일을 매년 한번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 한국에 이단의 창궐하는 위험을 주의, 경계하면서 이겨나가는 교회들이 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위험과 공격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붙어 닦친 큰 풍파는 사실 외부로부터 임한 박해의 무서운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역사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마귀의 유혹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내부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닦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단의 왕성한 출현을 특히 경계하면서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은 그와 같은 이단 사설이 교회를 위협했던 시기에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했습니다. 2장 18절에 먼저 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마지막 때, 말세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2천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말세라고 흔히 한탄하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기록된 당시에 이미 말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항상 종말이 닦친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을 일차적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나간 그들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알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속임수로 기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아주 잘 알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단적인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의 처음 이단과 같은 점들이 무엇일까요? 요한사도는 그것을 거짓말에 있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은 거짓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무서운 짐승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인척 가장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교묘히 성도들을 속이지만, 실제로는 이리와 같이 교회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어려운 점은 그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파괴한다는 것입

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굳건히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단의 적그리스도 세력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배우고 묵상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게을리 하면서 세상적인 삶의 유혹들에 빠져들면, 미혹하게 하는 욕심들에 지배되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난파하는 비참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속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이단의 교묘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굳건히 뿌리박고 매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이단 사설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도 요한의 권면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처하고 경계하기 위한 방법이 한마디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답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기름부음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이 점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와 감화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만나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요 거짓된 사자요, 우리를 속이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령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비추이심과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 사도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 지적 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지식이 이 단과 마귀의 속임수, 꾀계를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게을리 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면 우리는 악한 정욕들의 속박에 다시 얽매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그 권세를 향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거부하고 선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속이는 이단들과 함께 성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구주로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게서 나옵니다. 그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 사탄 마귀,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된 사탄의 영에 의해 이단들이 이끌린다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은 미혹하는 사탄의 영에 의해 끊임없는 지도를 철저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본문 4장 1절 이하에서 이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단,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지배하는 자인 사탄의 악한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영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속임에 빠져들어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만하고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입니

다. 분명한 진리에 서고, 그 영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일 거기 성령의 열매가 없고 거짓과 기만, 악한 정욕의 육적인 열매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지도 아래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깨어 기도예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일에 힘쓰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에 따라야만 바른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위대한 영적 전통을 다시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신 감리교회의 유산을 회복하여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한국 감리교회마다 다시 불붙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축되고 약화되는 오늘의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소망의 횃불을 받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큰 믿음의 성도들이 이단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늘나라의 귀중한 사명을 다하는 크나큰 축복이 한국 감리교회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후정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학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단을 대하는 법

요한2서 1장 7~11절

감리교회가 지키는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성교회를 향한 이단 종파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성 교회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신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와 계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단을 생각하며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 감리교회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단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하이레시스”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로 이단을 의미하는 “헤레시”(heresy)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사악한 당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고전11:19; 갈 5:20). 우리가 사용하는 이단(異端)이라는 말의 한자 의미는 “끝이 다르다”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잘 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논리로 발전하고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은 없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 할 때,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말씀을 통하여 이단을 대하는 법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진 요한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시는 한편으로 곳곳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 표현한 이단들의 준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이단은 누구인가?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144,000명을 말하며 성경을 놓고 논쟁하며 설득하던 여호와의 증인들의 방식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단들은 내부에서는 다르지만 외부적으로는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많은 조직과 행사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세계평화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성을 부정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나 하나님의 환상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절대자이시니 하나님이 유한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입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주장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기고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로 이단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에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규정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 우리가 지킬 교훈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기 위하여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요이 1:9) 것이 성도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즉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그렇게 되면 그 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회적인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신성과 보혈의 공로를 지키기 위하여 이단들과 싸웠고,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맞서야 했습니다. 결국 325년 니케아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삼위일체교리를 확정하기까지 거의 삼백년 동안 논쟁을 벌인 것은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기도 했지만 이단의 공격이 집요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고백, 즉 올바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 상대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이단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권면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집에 들이는 것은 더욱 피하라고 합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는 앞선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8,18)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못된 교훈을 가진 이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면 부모님께서 낮예배에 가시면서 낮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시 말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 불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의 여러 곳을 짚어가며 그들의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의 신앙을 말했고, 그들은 저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신앙적 확신과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맞섰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무한반복하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을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요

이 2:11)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훈련된 전도자들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무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훈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처입니다. 이단은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나는 경우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이단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의 모습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박도웅 목사 (서울연회 혜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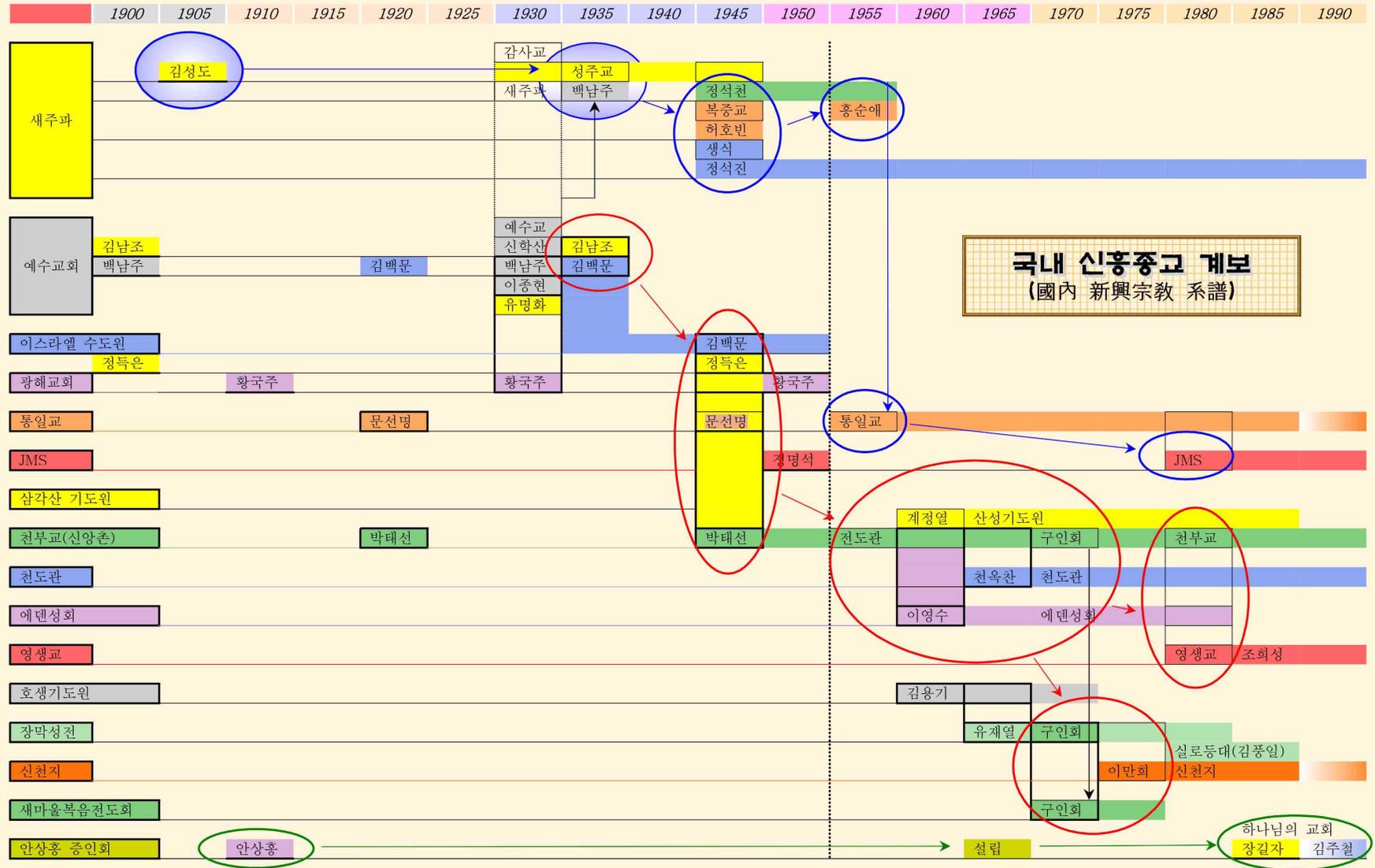
국내 이단 교세 현황

		교 주	공식명칭	사이트	대표전화	신도수	교회 수
국내 자 생	구원파	권신찬	기독교복음침례회	www.ebcworld.org	02-796-0092		100
		이요한	대한예수교침례회	www.seoul.jbch.org	031-422-0691	30,000 ¹⁾	58
		박옥수	기쁜소식 선교회	www.ebcworld.org	02-796-0092		100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186,175 ²⁾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cgm.or.kr	041-752-2151	10,000 ³⁾	266
	다락방	류광수	세계복음화 다락방전도협회	www.darakwen.net www.pcea.or.kr	02-3662-7661	200,000 ⁴⁾	633 ⁵⁾
	안상홍	장길자	세계복음선교회	www.watv.org	031-738-5999	200,000 ⁶⁾	118 ⁷⁾
	통일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www.tongilgyo.org/tongil	02-787-2100	19,000 ⁸⁾	220 ⁹⁾
	성락교회	김기동	서울성락교회	www.sunrak.or.kr	070-7300-6114	80,000 ¹⁰⁾	40
	만민중앙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www.manmin.or.kr		135,000 ¹¹⁾	
		이승오	말씀보존학회	www.kjv1611.or.kr	02-2665~3743	300 ¹²⁾	
	명인교회	박용우	명인교회			3,000	6
	밤빌리아		이선아, 허영만, 박영규			2,500	1
	부산제일	박무수			051-317-3400	5,000	
	새빛등대	김풍일	세광중앙교회		02-884-4541	4,000	23
	산해원	이태화	산해원부활교회	www.caleb3927.org		5,000	
	아시아	박철수		myhome.netsgo.com/s0307	02-2659-8253	4,000	
	서울그리스도	정용근		www.scoc.net	02-2068-0883	1,000	
	예수중심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www.hjc.or.kr	02-533-9191	3,000	
	천존회	박귀달..	천존회(천도선법)		033-430-9350	123,000	
창가학회	박재일	창가학회(한국SGI)	www.ksgi.or.kr	1566-1118	1,200,000 ¹³⁾		
큰믿음	변승우	큰믿음교회	http://cafe.daum.net/Bigchurch	02-586-3079	5,000		
	박윤식	평강제일교회	www.pyungkang.or.kr	02-2625-1441			
	하비람	장길섭	삶을 예술로 가꾸는..	www.theartoflife.co.kr	041-753-6567	9,500	
	한농복구	박영호	한농복구회	www.hannong.com	054-535-4402	5,000	
		이영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031-582-7820	6,000	
	혜성교회	유복중		www.noksan.org	02-6711-7000	1,000	
해 외 유 입	안식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www.adventistkr.org		232,559 ¹⁴⁾	711
	이슬람		한국이슬람교	www.koreaislam.org		200,000 ¹⁵⁾	16
	몰몬교	최윤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www.lds.or.kr	02-2232-1441	75,000 ¹⁶⁾	
	지방교	이희득	지방교회(회복교회)	www.forthetruth.or.kr	02-3472-2251	2,000 ¹⁷⁾	
	여증회	밀턴G. 헨켈	여호와의 증인	www.jw.org/ko	02-2234-4654	99,962 ¹⁸⁾	1331
계						2,846,996	

약 200여개 단체가 이단으로 활동(소규모 단체포함) 있으며, 자체발표, 예측 등을 고려하여 약 200만명으로 추산.

1)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생명의 말씀선교회)
 2) 월간 현대종교, 「이슈1-신천지 전망」, (서울: 현대종교, 2018년5월호), 19.
 3)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JMS)
 4)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류광수 다락방)
 5) 현대종교 편집국, 「이단 바로알기」, (서울: 현대종교, 2017), 62.
 6) ibid(하나님의 교회), 129.
 7) 하나님의 교회 2016년 보고서. 신도수 수십만명 예상.
 8) ibid.(통일교 교세). 223. 1만9천명의 발표는 2010년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수.
 9) ibid, 223.
 10)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베뢰아 아카데미)
 11) ibid, 374.(2016년 자체조사)
 12)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말씀보존학회)
 13)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창가학회)
 14) ibid, 294.(2013년 기준)
 15) 기독교일보(Christiandaily.co.kr), 2017.4.12. “국내 무슬림들, 모스크 등으로 전국 네트워크”
 16)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몰몬교)
 17) www.hdjongkyo.co.kr (단체정보-지방교)
 18) 「이단 바로알기」, 409.(2016년 기준)

■ 이단 자료 2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서 기 : 최선겸

* 신학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 이후정

서 기 : 정학진

위 원 : 최선겸, 한철희, 김기형, 오성주, 권혁대, 오병석, 노덕호

* 이단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 : 황건구

서 기 : 김현식

위 원 : 김성환, 한은종, 이진우, 김영윤, 김필수, 권진호, 김수천